

# “상생 이어지길”... 4000억 환급 혜택에 전통시장 활력 기대

## 프로 삼성 ‘온누리 페스티벌’

구매액 최대 30% 상품권 환급 설치·신청 거쳐 순차 지급 진행 상인들 “소비 활성화 도움 기대”

비수기 겹쳐 체감 효과는 아직 가격 할인 선호·사용처 한계도 골목상권 상생 효과 확산 주목

“이제부터가 기대되죠.”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상인 정연태씨(63)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늘긴 늘었다”며 “기업들이 상품권 연계 행사를 계속해 준다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열고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차현정·이승혁 기자

품권으로 환급했다. 국군 장병과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 고객에게는 30%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제품 구매 직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치와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아직 행사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실제 상품권 사용이 본격

격화되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찾은 망원시장은 무더위와 여름철 비수가 겹치며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다만 시장 곳곳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장을 보러 나온 주민과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졌고 일부 점포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였다.

상인 송모씨(50대)는 “날씨도 덥고 비수

기라 손님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라며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연계 행사가 더 알려지고 혜택도 확대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상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상인 김건희씨(27)는 “환급 신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더 늘어 전통시장 소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품권보다 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하는 방식이 체감도가 높고, 사용처가 제한되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상품권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씨는 “기업과 시장이 함께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이런 상생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종망원시장상인회장은 “여름철은 비수기지만 삼성전자가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사용된다면 점포마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점은 시장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밝힌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약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창녕전통시장과 충주 자유시장·무학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에는 행사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급 혜택과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물을 배부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에 나섰다. 행사 기간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오는 9월 5일까지 제품을 수령·설치하면 같은 달 30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차현정·이승혁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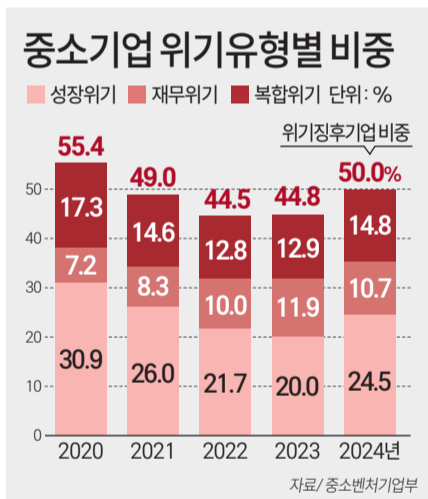
# AI로 25만 중소기업 위기징후 사전 포착

중기부,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위기징후지수 4단계로 분류 예비경보·경보 기업에 알림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25만개 기업에 대한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 위기를 빠르게 알려준다. 전국에 있는 34곳의 재도약지원센터를 통해 위기현황 진단·성장성 확인을 거쳐 성장성이 있는 곳중 재무위기 기업은 구조개선을, 성장 위기가 있는 기업은 사업전환을 각각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이 1미만인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늘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2024

년 기준 절반가량인 5만5000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였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9700개사, 8.8%의 45%는 매출이 늘고 있어 적기에 구조 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했다.

중기부는 우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용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6만개사에서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과 재무위기 징후까지 탐지해 알리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 지수를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도출한다. 예비경보·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MW iX3 차량.

/양성운 기자

## “흔들림 줄인 프리미엄 주행 체감”

### YG의 CAR TALK

#### BMW 더 뉴 iX3

울컹임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 구현 슈퍼브레인 기반 정속·안정성 강화

BMW가 새롭게 출시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iX3’는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했다.

BMW의 새로운 디자인과 대폭 강화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미래 기술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노이어 클라쎄’를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와 영종도 일대에서 ‘더 뉴 iX3’를 직접 주행하며 기존 전기차와 차별화된 성능을 경험했다.

우선 전기차 특유의 경쾌한 가속감과 BMW 특유의 민첩한 움직임은 유지했다. 특히 가장 큰 매력은 기존 전동화 모델의 아쉬움으로 지적된 울컹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차체 움직임은 기존 전기차보다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같은 차별화는 더 뉴 iX3의 핵심 기술인 4개의 고성능 컴퓨터 전체를 컨트롤하는 ‘슈퍼브레인’이 자리하고 있어 가능해졌다.

실제 공도를 주행해보니 더 뉴 iX3는 전기차답게 실내 정속성은 뛰어났다. 영종도 일대를 주행하는 동안 더 뉴 iX3는

저속과 고속주행에서 모터 구동음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노면 소음과 진동, 풍절음은 완벽하게 걸러냈다.

고속방직터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차량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민첩하게 이동했다. 또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부드럽게 가속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가속 성능은 전기차답게 빠르게 반응했다. BMW에 따르면 더 뉴 iX3는 최고출력 469마력, 최대토크 65.8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9초다.

주차장에서는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파킹 어시스턴트’를 실행한 뒤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선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주차선에 맞게 주차한다. 또 주행 중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연스럽게 주행을 이어갔다.

일반 도로 주행 이후 진행된 서킷 주행에서 차량의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해 차체 위에 워셔액을 담은 컵을 올린 상태로 슬러림 코스를 주행했다. 출발 전 450ml의 워셔액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컵을 차체 위에 올리고 주행했다. 코스에 설치된 콘을 피하기 위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주행했지만 주행 후 컵에 담긴 워셔액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컵에 담겨 있었다. 차체의 흔들림에 액체가 쉽게 넘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

## LX판토스, 글로벌 사업장 ESG 경영 확대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사진)는 “회사는 ‘Value Deliverer for People and the Planet’ (사람과 지구를 위한 가치 전달자)이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과 정도경영을 전사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과 에너지 전환, 협력사와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대표는 LX판토스가 8일 펴낸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책임 및 기업윤리, 근로자의 인권존중,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X판토스는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9개 핵심 중대 이슈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에너지 ▲친환경 물류 서비스 ▲소비자 가치 경영 ▲임직원 관리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사업행동 ▲신성장 동력 및 사업 다각화 등에 대한 설명과 각 이슈별 대응 방향 및 주요 성과들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LX판토스의 기업 특성을 반영해 보고 범위를 글로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 대한전선 호주 AIDC 전력망 수주

대한전선이 호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고부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호주 최대 송전 전력청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가 발주한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망 구축 토크 프로젝트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4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330kV급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크 방식으로 수행한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대규모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원민희 기자 whk@